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3 No.70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과 2015년 對러 교역여건 전망

2014년 12월

전략시장연구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	1
II. 러시아경제 침체의 원인	9
III. 교역 및 투자여건 변화	14
VI. 한국의 대러교역 동향 및 현장실태	17
V. 향후전망 및 시사점	21

보고서 내용 문의처

홍 정 화 수석연구원 (☎ 02-6000-5178, marina01@kita.net)

유 승 진 연구원 (☎ 02-6000-5455, esjay@kita.net)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 : //iit.kita.net](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럴당 115달러를 넘는 고유가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해온 러시아는 최근 유가하락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조업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자원에 의존해온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2011년 4.3%, 2012년 3.4%, 2013년 1.3% 성장에 그치며 둔화를 보여 온 러시아 경제는 2014년 그 둔화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GDP성장률은 1분기 0.9%, 2분기 0.8%, 3분기 0.7%에 그쳤고 4분기에는 0.0%(제로 성장)가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의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출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서방국에 대한 러정부의 식료품 수입 금지조치는 식품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12월 소비자물가는 11.4%로 200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며 2014년 3분기까지의 자본유출은 총 852억 달러에 달하고, 국제유가 하락이 가속화됨에 따라 루블화 가치는 연초 대비 약 50%내외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서방의 대러제재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와 미국의 원유생산 증대에 따른 저유가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러시아 경제의 혼돈 양상은 꽤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러시아 경제의 침체를 반영하듯 우리의 대러 수출은 7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은 총수출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수출에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러 주력 수출품목에의 타격과 신규투자 축소 등이 우려된다. 또한 대러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 정치경제상황 변화와 러시아 경제위기가 주변 CIS국 등 기타 신흥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은 당분간 지속될 저유가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러 진출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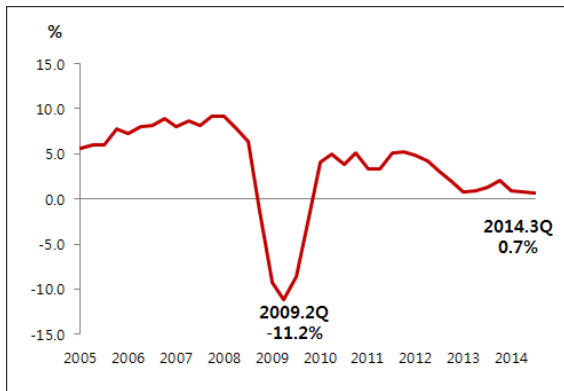
부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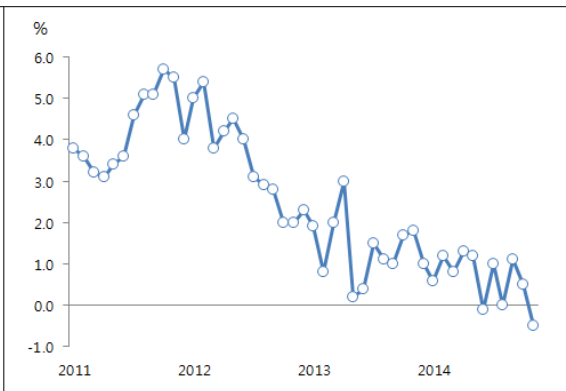
I. 최근 러시아 경제 동향

- (GDP) 2011년 4.3%, 2012년 3.4% 성장 이후 2013년 1.3% 성장에 그치며 경기 둔화를 보이던 러시아 경제는 2014년에도 그 둔화세가 지속
 - 분기별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분기 0.9%, 2분기 0.8%, 3분기 0.7%이며 1~9월 누적으로는 0.8%를 기록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4분기 제로 성장을 예상
 - 월별 GDP 성장률 역시 2013년 4월(2.8%)을 제외하고는 1%대 성장에 그침
 - 8월 0.0% 성장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9월은 1.1% 성장을 보였으나 11월 들어서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0.5%)을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냄

<분기별 GDP 성장률>



<월별 GDP 성장률>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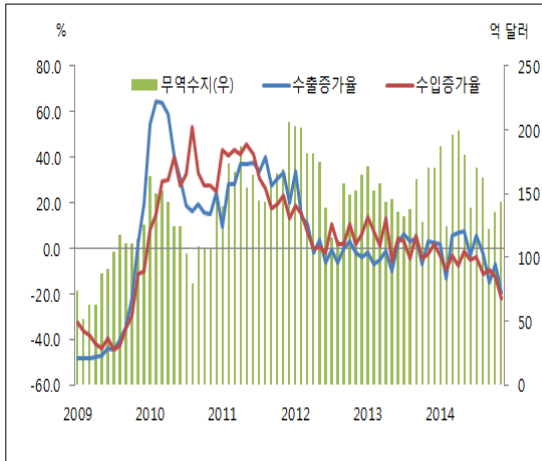
<러시아 경제성장률(전망)>

	러경제 개발부	IMF	IBRD	OECD	JPMorgan Chase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Group
2014	0.60	0.24	0.50	0.32	0.60	0.60	0.30
2015	-0.80	0.51	0.30	0.03	-3.30	-0.50	1.00
2016	2.30	1.50	0.40	1.64	1.50	1.10	2.10

자료 : Bloomberg

- (수출입) 2009년을 제외하고 고유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수출입 증가율은 2013년 수출 -0.8%, 수입 1.7% 증가에 그쳤으며 2014년에도 감소세가 지속
 - 2014년 3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한 1,258억 달러, 수입은 8.5% 감소한 799억 달러 기록
 - 러시아 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출 감소는 불가피
 - 8월 이후 크게 감소하였던 수출은 11월 전년동월대비 19.7% 감소
 - 수입은 국내수요 감소와 경기 둔화로 인하여 2013년 12월을 제외하고 2013년 10월 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 특히 11월 수입은 232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2.1% 감소하며 올해 가장 큰 감소폭 기록
 - 11월 무역수지는 144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1~11월 누적으로 1,764억 달러 흑자

<對세계 수출입 증가율>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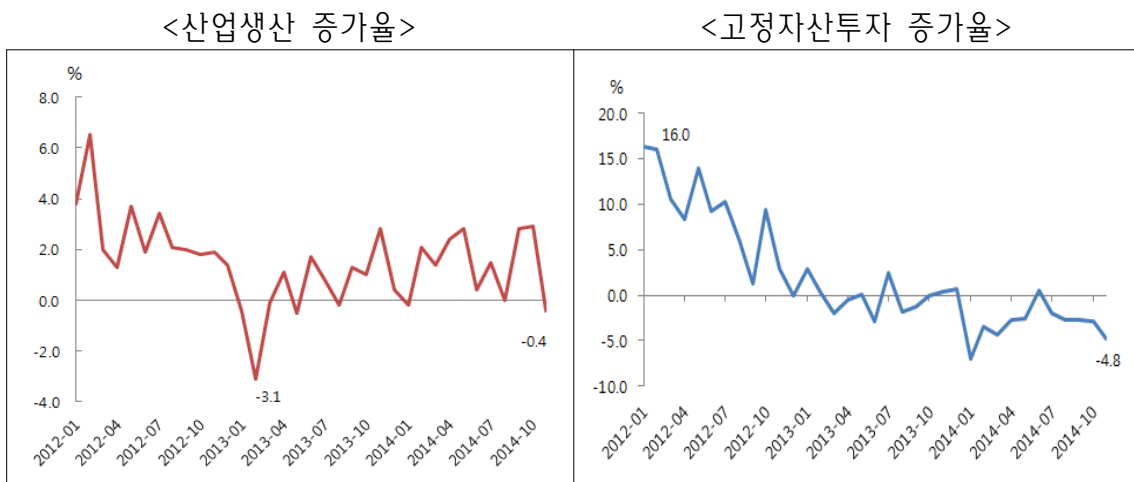
<러시아의 주요 수출국(2013)>

(전년대비, %)		
	국가	수출증가율
1	네덜란드	-7.5
2	이탈리아	40.8
3	독일	58.3
4	중국	6.2
5	터키	59.6
6	우크라이나	70.9
7	벨라루스	-3.5
8	일본	29.8
9	폴란드	-0.3
10	카자흐스탄	32.5
12	한국	7.7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산업생산) 2013년부터 부진하였던 산업생산은 2014년 1월~5월까지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으나 2분기부터 둔화와 반등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
 - 8월 0.0% 성장 이후 9월과 10월은 각각 2.8%, 2.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1월은 -0.4%로 감소
 - 업종별로는 9월과 10월 반등한 제조업(3.6%)이 11월 들어 3.0% 감소하며 전체 산업생산 하락을 초래함
 - 광업과 전력 생산은 각각 2.5%, 7.0% 증가하며 산업생산 감소폭을 완화
 -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기계류 -17.0%, 섬유 -11.9%, 운송기기 및 장비 -4.5%로 크게 감소
- (고정자산투자) APEC 정상회의(2012.9) 및 소치 동계올림픽(2014.2) 등 국제행사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종료됨과 동시에 2013년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지속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3년 부터 둔화되었으며 올해 들어서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분기별로는 1분기 전년동기대비 -4.8%, 2분기 -1.4%, 3분기 -2.4%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
- 월별로는 6월 0.5% 증가를 제외하고 계속 감소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CEIC

- (민간자본유출) 2014년 1~9월까지 자본유출은 총 852억 달러로 2013년 연간 자본유출 규모(610억 달러)를 초과
 - 분기별로는 1분기 486억 달러, 2분기 237억 달러, 3분기 130억 달러로 차츰 유출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자본유출 규모가 큰 편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4년 민간자본유출을 1,280억 달러로 추정(11월)하였으나 12월 들어 1,3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치를 수정
 - * 이 추정치는 2008년 금융위기 때의 민간자본유출 규모 1,336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치임

<민간부문 자본순유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계	은행부문		기타부문	
		Foreign assets	Foreign liabilities	Foreign assets	Foreign liabilities
2006	437	-235	511	-563	612
2007	878	-251	709	-936	1,454
2008	-1,336	-633	81	-1,742	989
2009	-575	100	-421	-533	343
2010	-308	-17	176	-629	254
2011	-814	-318	78	-1,077	589
2012	-539	-148	333	-1,018	398
2013	-610	-279	204	-1,383	956
1Q	-282	-247	73	-750	709
2Q	-55	-136	92	-129	102
3Q	-104	153	-44	-276	82
4Q	-169	-50	84	-229	64
2013.1~9	-441	-229	121	-1,154	893
2014					
1Q	-486	-221	9	-311	86
2Q	-237	-83	-74	-263	130
3Q	-130	321	-113	-224	-57
2014.1~9	-852	18	-178	-798	158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 (외환보유고) 2014년 11월말 기준 외환보유고(금포함)는 4,188억 달러로 연초(5,096억 달러) 대비 약 900억 달러가 감소하였음

○ 중앙은행의 루블화 방어 및 자본유출 등에 따라 외환보유고 중 외환 부분은 연초 대비 약 950억 달러가 줄어들었음

- 루블화 약세로 인해 자본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외환 부분을 대신하여 안전자산인 금보유를 늘림

-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금을 매입함으로써 리스크 분산 효과를 가짐

* 10월 말 러시아는 외환보유고의 10.21%인 1168.7톤의 금을 보유

<러시아 외환보유고>

(단위 : 백만 달러)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 구성				금
		외환보유				
		소계	외환	SDRs	IMF 지분	
2011.12	498,649	453,952	441,162	8,729	4,061	44,697
2012.12	537,618	486,578	473,110	8,741	4,727	51,039
2013.10	524,284	480,238	466,937	8,751	4,551	44,045
11	515,590	474,950	461,685	8,734	4,530	40,640
12	509,595	469,605	456,447	8,762	4,396	39,990
2014.1	498,926	457,211	444,149	8,730	4,332	41,715
2	493,326	448,738	435,565	8,805	4,368	44,588
3	486,131	442,776	429,689	8,796	4,291	43,355
4	472,278	427,975	414,758	8,820	4,397	44,303
5	467,227	423,768	410,866	8,767	4,136	43,459
6	478,250	431,958	418,828	8,798	4,332	46,292
7	468,762	422,654	409,647	8,716	4,291	46,109
8	465,228	419,239	406,404	8,642	4,193	45,990
9	454,240	409,224	396,792	8,438	3,994	45,016
10	428,590	383,283	370,916	8,414	3,953	45,307
11	418,880	373,658	361,409	8,334	3,915	45,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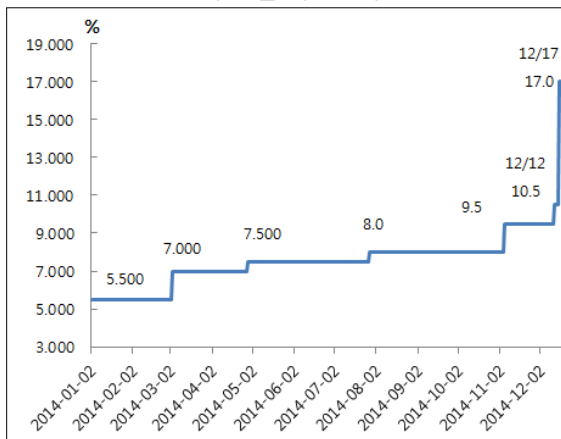
주 : 월말
자료 : 러중앙은행

□ (환율) 루블화 가치는 연초대비 약 41.8% 하락하며 12월 31일 현재 달러당 루블 환율은 56.26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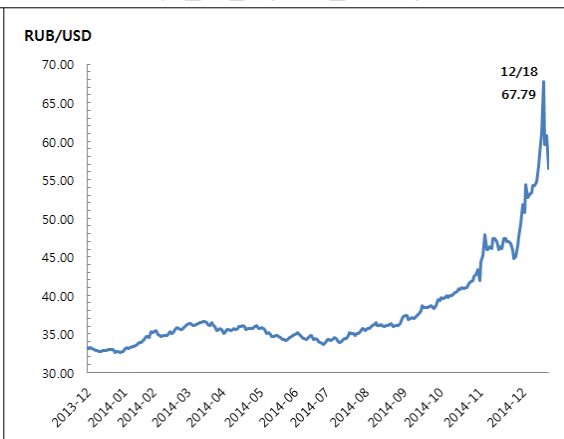
-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초래한 자본유출과 서방국가의 경제제재, 그리고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루블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음
- 2014년 11월 27일 OPEC의 원유 생산량 유지 결정 이후 급락한 유가 영향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12월 16일 기준금리를 6.5%p 인상하여 17.0%로 설정

- 12월 들어 두 차례 금리를 인상(12월 11일, 16일)하며 루블화 가치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함
 - * 러시아는 연초 5.5%였던 금리를 지난해 총 6차례 인상
- 파격적인 금리 인상 후에도 한때 장중 70루블 이상이었던 루블/달러 환율은 12월 31일 현재 다소 진정되며 56.26루블을 기록
- 중국이 12월 20일, 기존 240억 달러인 러시아와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추가 240억 달러(약 24조 5000만원)를 추가한 48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후 환율 진정세가 보이기 시작
 - * 루블/달러 추이 : 11월 27일 46.4244루블 → 12월 2일 51.8068루블 → 12월 17일 61.1512루블 → 12월 23일 56.4940루블
 - * 중국은 10월 240억 달러 규모, 3년 기한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러시아와 체결한 이후 필요 시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

<기준금리 변화>



<루블/달러 환율 변화>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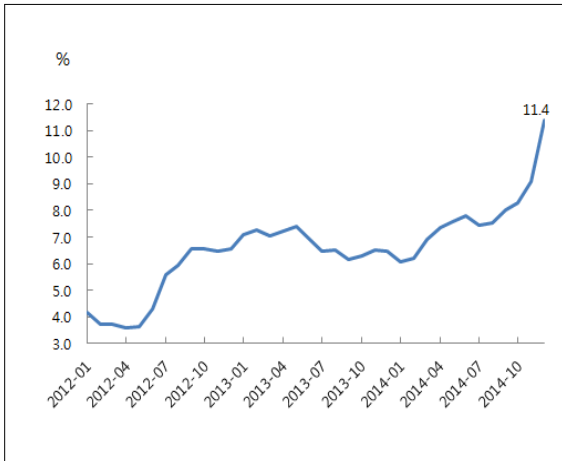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연초 6.1%에서 점차 증가하여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하며 2009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비식품물가는 11월에 비해 2.2%p 상승하여 8.1%, 식품물가는 2.8%p 상승하여 15.4%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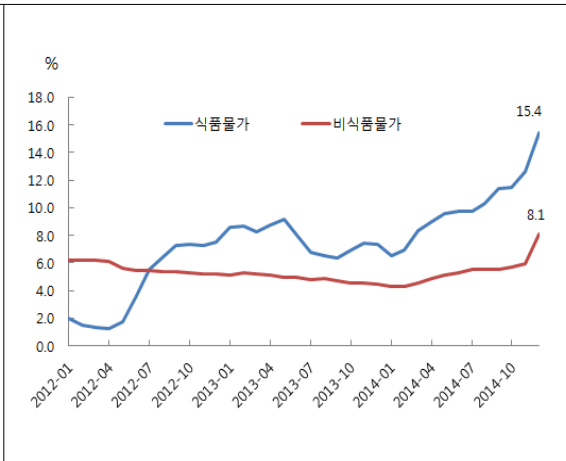
* EU 및 서방국에 대한 식료품 수입 금지로 인하여 식품물가는 2011년 7월(11.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플레이 압력을 가중시킴

- 전월 대비로는 식품물가 2.0%, 비식품물가 0.6%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는 1.3%상승

<소비자물가 상승률>



<식품 및 비식품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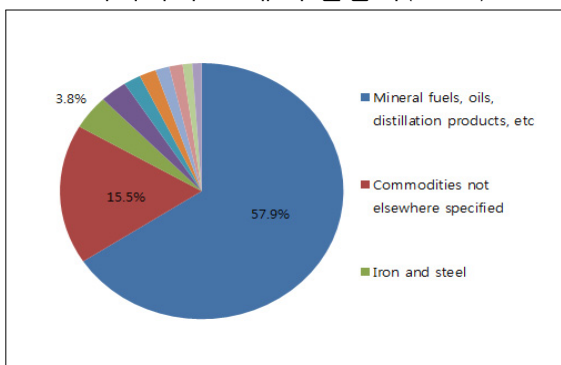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CEIC

II. 러시아경제 침체의 원인

(1)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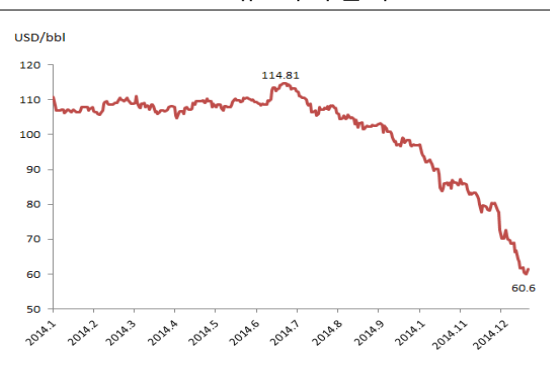
- 러시아 총수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이 2014년 하반기 들어 급격히 하락하며 러시아 수출 감소를 초래
 - 6월 이후 국제유가는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지며 러시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6월 19일 배럴당 \$115.06(최고가)였던 브렌트(Brent)유는 12월 18일 배럴당 \$59.27로 고점대비 약 48.5% 하락
 - 유가 하락의 원인은 미국의 석유생산 증대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 OPEC회원국의 감산 합의가 불발되며 국제유가 하락은 계속됨
 -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5년 브렌트유 평균가격은 \$68.08/b로 전망(12/9)되며 당분간 저유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세계 석유공급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석유수요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

<러시아의 10대 수출품목(20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Brent유 가격변화>



자료 : Bloomberg, H A A H C - M E Д И A

(2) 서방의 본격적인 대러 제재

-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편입 이후 미국과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였음
 - 미국과 EU는 3월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합병이후 이에 동참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주요인사에 대해 여행제한 및 자산동결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함
 - 이후 4월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과 EU는 추가 제재를 시행
 - 초기 제재가 푸틴 측근에 대한 입국금지, 비자발급 거부 및 자산동결의 형태로 진행된 것에 비해 7월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고 이후 경제제재에 초점을 둠
 - 러시아 자본 접근 금지(러시아 대형 은행 제재)와 함께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시작
 -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親)러시아 반군의 휴전합의(9/5, 민스크) 관련 러시아의 휴전 이행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과 EU는 9월 12일 수위를 높여 추가 제재를 단행
 - 미국과 EU는 러시아 스베르뱅크에 대해 미국인과 EU 회원국들의 신규 거래 금지, 만기 30일 이상의 채권 발행 금지 시킴
 - 러시아 국영 석유업체 Rosneft와 천연가스기업 Novatek, 러시아 3대 은행에 속하는 Gazprombank와 VTB, 8대 국방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에서의 채권발행 및 자본조달금지 조치 시행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유럽투자은행(EIB)의 러시아 신규 투자 중단, 정부 지분 50% 이상 은행의 유럽 금융시장 내 주식 및 채권 발행 금지, 에너지 기술 수출 제한, 상업용-군사용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금지 등 제재 강도를 높임

<미국, EU 등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2014)>

구분	일자	제재내용
EU	3. 5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18명 고위인사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3.17	러시아 군부인사 등 21명 추가
	3.21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인사 12명 추가
	4.29	부총리 등 러시아 정치인과 크림자치공화국 관계자 비자발급 중단,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5.12	러시아 관련자 13명, 크림반도 기업(체르노모르네프찌가스, 페오도시야) 2개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중지
	7.25	말레이기 피격사건관련 러시아 책임자 비자발급 중단 및 자산동결
	7.29	금융, 국방, 에너지 등 제재대상 분야 확대
	9.12	은행·에너지·방산업체 등 15개 회사와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지도자와 러시아 정부 인사, 기업인 등 24명을 추가 제재
	12.19	중진 크림 및 세바스톨로부터의 수입 금지를 수입은 물론 수출, 투자, 관광서비스 등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
미국	3. 6	재무부장관이 제재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3.16	러시아 정부관료, 의회고위인사 7명에 대한 자산동결 및 비자발급 금지
	3.20	OFAC은 20명(개인) 및 Bank Rossiya(법인) 제재
	4.12	크림반도 내 가스회사(체르노모르네프찌가스) 제재
	4.28	Rosneft CEO의 비자발급 금지, 러시아기업 17개 자산동결
	7.16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과 은행, 무기생산업체를 제재 대상에 추가
	7.29	금융, 국방, 에너지 등 제재대상 분야 확대
	9.12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티 등 러시아 에너지와 국방·기술분야 5대 기업 제재 러시아 심해와 북극 연안 개발, 셰일가스 생산과 관련해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것 금지
12.19	크림지역에 대한 수출입, 투자, 서비스 등 포괄 금지 발표	
캐나다	12.19	수출금지대상 러시아 석유부문 대상자 11명 지정

자료 : 미상무부, 유럽연합, 캐나다 정부 자료 등을 참조하여 자체 작성

(3)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역제재로 인플레이 압력 가중

대러 제재에 동참한 서방에 대한 역제재로 고립 자초

○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는 제재에 참여한 국가를 대상으로 역제재를 시행

- 미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에서 생산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과일·채소, 우유, 유제품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8/7)
(HS code별 금지품목 아래 표 참조)

-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몰도바 농수산물 수입 제한, 미국 프랜차이즈 맥도널드, KFC, 버거킹 등에 대해 치즈 위생 검사 강화 등 식품분야에서의 제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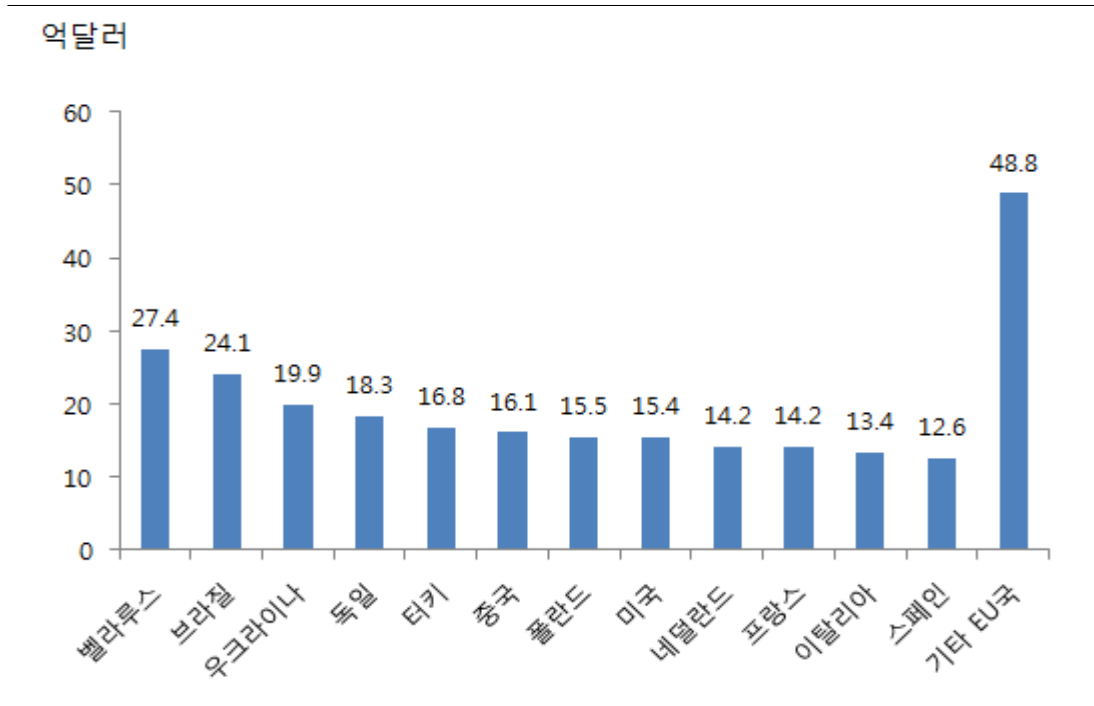
<러시아 수입금지 품목(HS Code)>

HS Code	품 명
0201	소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0202	소고기(냉동한 것)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 냉동한 것)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신선한 것, 냉장, 냉동한 것)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 건조, 훈제한 것으로 한정) *이 중 유아용 식품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활어,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 무척추동물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우유와 유제품
0701, 0702 00 000, 0703, 0704, 0705, 0706, 0707 00,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3	과일, 견과류
1601 00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1 90 110 0, 1901 90 910 0	치즈나 식물성 지방으로 만든 커드가 포함된 완제품
2106 90 920 0, 2106 90 980 4, 2106 90 980 5, 2106 90 980 9	식료품(식물성 지방으로 만든 유제품)

자료 : 러시아 정부(<http://government.ru/media/files/41d4f8e16a0f70d2537c.pdf>)

- 2013년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 약 160억 달러의 식료품을 수입, 식료품 부문에서 유럽의 두 번째로 큰 수출시장임
- 2013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EU로부터 16억 달러의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지방(fat)을 수입했으며 소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1억 4,700만 달러, 3억 1,000만 달러를 수입

<대러시아 주요 식료품 수출국 및 실적(2013년)>



자료 : Reuter재인용

-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추후 제재가 가능한 분야로는 유럽 항공사의 러시아 영공 사용금지, 러시아내 해외자산 압류, 서유럽 생산 차량 수입금지 등으로 예상

Ⅲ. 교역 및 투자여건 변화

- 루블화 가치의 폭락으로 대표적인 수입재인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입소비재의 수입가격이 폭등하여 외국산 제품 수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차량판매 확대를 목표로 정부가 지난 9월 재도입한 신차구입지원 프로그램(car scrappage scheme)에도 불구하고 크게 감소
 - 2014년 7월 한달 차량판매가 23% 감소한 180,767대에 그쳤고, 1~7월 기간 판매는 140만대로 전년대비 10% 감소
 -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소비자들이 많은 지출이 수반되는 소비는 추후로 미루고 있는 상황
 - 최근 루블화 가치 하락을 감안할 때 자동차 판매는 2015년에도 약 7.0% 감소 전망(BMI)
 - 더욱이 서방 제재가 보다 강화될 경우 러시아정부의 외국 자동차 수입금지 발동 가능성도 상존
 - * Car scrappage scheme : 러시아 정부가 신차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당시 차령 10년 대상)한 바 있으며, 2014년 경제침체와 제재로 차량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자 2014년 8월 재도입한 제도로 6년 이상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주는 제도(17만대에 총 2억7천2백만 달러 규모)
- 서방의 제재 및 최근 경제여건 등의 영향으로 일부 서방기업들은 프로젝트 중단 또는 현지투자 보류
 - 러시아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최근 러시아 정치 및 경제 상황을 고려, 현지 제조시설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관망중임
 - 독일계 제약회사인 프레세니어스(Fresenius)사는 최근 러시아 억만장자 블라디미르 예프첸코프(Vladimir Yevtushenkov) 소유 러시아 대기업 시스테마(Sistema JSFC)사와 합작투자 중단 발표

- 각종 규제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른 부정적인 시장 전망을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
- 서방 석유 메이저인 엑슨모빌(ExxonMobil)과 셸(Shell) 역시 서방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속 의지를 피력했던 지난 4~5월과 달리 최근 러시아와의 합작사업 중단 선언(2014년 10월)
 - 미국계 엑슨모빌은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 북극해, 서시베리아 및 흑해에서 러시아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트(Rosneft)와 진행중인 석유생산 프로젝트 10개중 9개를 중단
 - 2014년 5월 주주회의에서 제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며 동사 CEO(Rex Tillerson)가 제재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
 - 셸 역시 제재로 인해 자사가 추진중인 서시베리아의 칸티만시스크(Khanty-Mansiysk) 지역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 9월 30일 프로젝트 중단 발표
 - 셸사 CEO(Ben Van Beurden) 역시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파트너와의 사업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러시아 정부의 자본통제 가능성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 진출 및 사업활동 여건이 크게 악화될 우려 상존
- 러시아 정부 당국이 최근 루블화 가치의 급격한 추락 제지를 위해 통화량의 엄격한 조절, 외환수급 통제 등 자본통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이 점증
 - 루블화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영향권 밖에 있는 유가 하락 및 서방의 제재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정책목적 달성은 어렵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본통제 가능성 상존
 - 통제 형태는 단기 외화거래(short-selling) 금지, 외화자금의 자국내 유지 의무화*, 비거주자의 외환 해외이전 제한, 해외투자 사전허가 등의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이미 12월 초 푸틴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자본 본국 송금에 대해 조세를 전면 감면하는 등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임

○ 러시아 정부가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최근의 통화위기를 감안할 때 과거 러시아가 경제위기를 겪을 당시와 아주 흡사한 전철을 밟는 점에서 위험한 전략일 수 있음

- 위기를 경험한 몇몇 신흥국들 모두 위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는 한 자본통제 효과가 자국 통화가치 안정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2008), 아르헨티나(2001), 말레이시아(1998) 및 러시아 역시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경험한 바 있음

○ 진출 대상국(투자처) 정부의 자본통제는 러시아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주어 심할 경우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IV. 한국의 대러 교역동향 및 현장실태

(1) 대러 교역동향

□ 2014년(1~11월) 對러시아 수출은 감소, 수입은 크게 증가

- 對러 수출은 96.6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5.9% 감소
 - 7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를 보였으며 11월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며 34.7% 감소
- 對러 수입은 146.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1.3% 증가
-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적자폭이 커지며 49.8억 달러 적자 기록

□ 수입의 큰 폭 증가에 따라 2014년 양국 교역량은 수교이후 최대 전망

- 1~11월 수출과 수입을 합한 양국간 교역 규모는 243억 달러로 교역 규모만을 놓고 볼 때 수교 이후 최대

<최근 對러시아 수출입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7	2014.8	2014.9	2014.10	2014.11	2014.1~11
수출	금액	111.0	111.5	9.1	7.0	7.0	7.2	5.8	96.6
	증가율	7.7	0.5	-12.2	-18.2	-13.2	-33.0	-34.7	-5.9
수입	금액	114.0	115.0	14.1	13.1	16.7	14.5	12.0	146.4
	증가율	4.6	1.2	60.1	47.1	96.1	53.7	6.9	41.3
무역수지		-2.6	-3.5	-5.0	-6.1	-9.7	-7.4	-6.3	-49.8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품목별로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석유제품,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의 수입은 크게 증가

○ 수출 품목 1,2위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은 현지 생산과 러시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자동차는 5월부터 수출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11월은 전년동월 대비 66.4%로 크게 감소

- 2,3월 감소세를 보이던 자동차 부품의 수출은 6월 증가세에 들어섰으나 8월 이후 다시 감소

* 주요 수출 품목의 큰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 감소폭이 적은 것은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며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

○ 수입은 석유제품(181.3%), 천연가스(87.0%), 기타철강제품(191.1%)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

- 원유 수입처의 다변화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증가

- 2월 806.2%, 7월 969.9%, 10월 711.2%로 큰 폭으로 증가한 석유제품을 비롯하여 주요 수입품목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1~11월 對러시아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총계	9,655	-5.9	총계	14,638	41.3
1	자동차	2,565	-25.6	석유제품	4,919	181.3
2	자동차부품	1,318	-8.5	원유	4,164	0.1
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860	887	석탄	1,507	4.9
4	합성수지	400	-17.6	천연가스	992	87.0
5	영상기기	341	15.9	합금철선철및고철	585	-1.9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 대러 수출업체 및 현지 진출기업 실태

- (대러 수출업체)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 일부 대러 수출기업의 경우 러시아 수입자의 주문 취소, 물품인수 거부, 가격할인 요구 등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협회가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한 전화 인터뷰 결과 율활유 수출업체인 A사, 식료품 수출업체 B사 등이 이런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위기가 유가 하락 및 경제제재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현상은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

<대러 수출업체 사례>

사례 1

율활유를 수출하는 A사의 현지 파트너사는 자국내 100여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건설한 기업이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 거래선 관리 차원에서 일정부분의 수출금액 디스카운트를 해줌.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는 심각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러시아인들은 버티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 향후 위기가 장기화될시 물물교환 등 수출구조의 다변화를 추진중

사례 2

식료품 수출기업인 B사는 환율 폭등, 현지 판매 감소, 재고 처리 등의 3중고를 겪고 있음. 세관에 수입신고 대기중인 수출 물량에 대해 현지 바이어가 일방적으로 인수거부의사를 표시하여 당혹스러운 상황. 일부 바이어들의 파산위험까지 있어 수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며 향후 수출-수입 병행전략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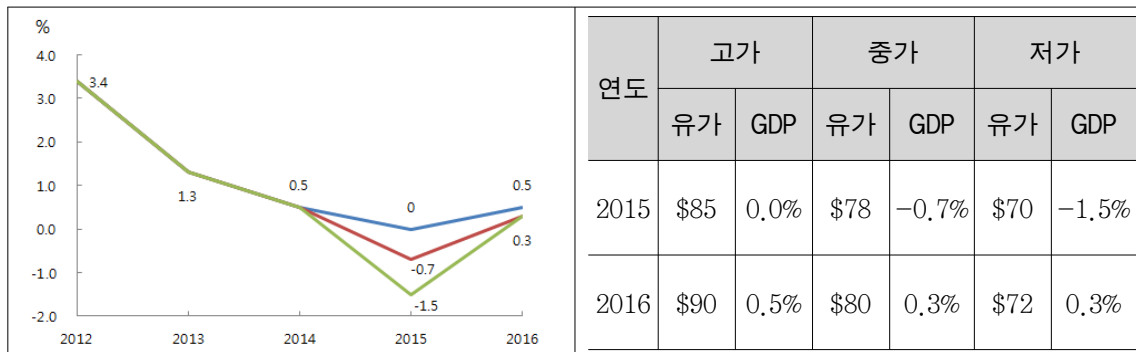
- (현지 진출기업) 극동 지역 등 현지진출 우리기업 역시 최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 가중
- 극동러시아 진출기업들은 대부분 공산품 수출영업을 주로 하는데, 2014년 12월부터 현지 거래선들의 주문 취소 속출

- 10~11월은 외상거래 등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을 찾아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있었으나 12월 들어 루블화 폭락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현재 뚜렷한 방법이 없어 어려움 가중
- 현지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덜 된 상황에서 현지 거래선도 인상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
- 현지 러시아직원 급여 지급도 부담으로 작용
 - 루블로 측정되는 러시아 직원의 급여가 치솟는 물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상승률이 겹치는 2015년의 경우 문제가 지금보다 심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
 - 2014년 소비자물가승률 잠정치인 11.5%보다 현지 체감물가는 더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
- 루블화 폭락에 따라 극히 일부 수혜기업(예: 수산 조업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제품 판매 및 현지 법인 운영 전반에 애로 가중
 - * 러시아에서 조업하는 수산회사의 경우 조업관련 모든 비용은 루블로 정산되고 수출은 달러로 하기 때문에 원가감소에 따른 마진 확대 가능성

V. 향후전망 및 시사점

- 저유가 추세가 지속됨으로써 러시아 수출 감소와 서방 제재로 인해 당분간 러시아 경기 침체는 지속될 것
 - 미국의 원유생산 증대와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하락으로 러시아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러시아 국가 신용도 역시 하락할 가능성 존재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BBB-(적격 투자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서 투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
- 2015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전망
 -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에 머물면 2015년 러시아 GDP는 4.5~4.7%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은 현재 유가(2015.1.7. \$48.08/bbl, 두바이유) 보다 높은 수준의 유가 하에서 2015~2016년 경제성장률 -1.5%~0.5%로 전망

<국제유가 추정치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World Bank, Press Release (2014.12.9)

- 러시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력 수출품목의 타격과 신규투자 축소 등이 예상됨
 - 경제위기로 인한 러시아 국내수요 감소와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현지 진출기업의 경우 신규투자 축소 및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이 높아짐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러수출은 총수출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

- 러시아 경제위기가 주변 CIS국 등 기타 신흥국으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유가시대에 맞는 새로운 진출전략을 모색
 - 대러 의존율이 높은 수출기업의 경우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감소와 그 결과로 나타날 영업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환리스크 관리를 통해 루블화의 큰 변동성에 대처할 대책 마련과 현지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 러시아 사태 장기화시 수출선 전환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

**최근 러시아 경제동향과
2015년 對러 교역여건 전망**

Trade Focus Vol.13 No.70

발행인 | 한덕수

편집인 | 오상봉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